인도네시아 권시민, 김조은 (지혜, 지성) 가족소식 2022년 8월 No. 3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희망친구 기아대책
E-Mail : ardwboy@daum.net 카톡 ID : inikwon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년에 한번 아니 천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한국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의 공통적인 답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비해 주신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인 사람들의 마음 밭이 이 땅에 뿌려질 복'음'의 씨앗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한 말과 행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이유이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개척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좋은시민회사

지난 7월, 좋은시민회사(김세용목'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펜데믹 이전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손 모으며 동역하는 파송회사의 방문이 얼마나 반갑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깔리만탄섬 사역지를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고 현지의 필요들을 살폈습니다. 트란2 마을에는 아직도 화장실을 갖춘 집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엘'샤다이 교'회 화장실 건축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셨고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8월에 가'핀교'단 남'전'도회 연합 모임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깔리만탄섬 전역에 선포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물라이마을 교'회 건축과 엔또마스 마을 교'회 건축

물라이 마을 교'회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만 전'도사가 사역하기 전만 해도 사역자가 없어 비어 있었는데 아만 전'도사(작년에 살'렘신'학교에서 파송된 실습 전'도사)의 헌신으로 다시금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공사도 오랜 시간 멈춰 있었지만 헌신된 사역자를 통해 건축 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라이 마을 이름의 뜻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주변 마을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손 모아 주세요. 또 응깔렛 교'회를 통

해 개척된 앤또마스 마을 교'회도 건축(기'아대'책후원)되고 있습니다. 깔리만탄섬 전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계속 세워지도록 중보해 주세요.

실습전'도사 신'학교 복귀, 그리고 신임 실습전'도사

함께 사역하는 가'핀교'단은 신'학교가 없어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잔마을 국민고등학교 졸업생을 살'렘신'학교에 장학금 후원 매칭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교'회 사역을 위해 살'렘신'학교에서 매년 실습 전'도사를 보내 줍니다. 지난 1년 간 수고한 5명 실습 전'도사들이 신'학교에 복귀하면서 다시 4명의 실습전'도사가 진주회사의 후원으로 깔리만탄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앤소용 마을을 섬겼던 안똔 전'도사가 살'렘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10월에 다시 앤소용 마을에 돌아와 사역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열악한 정글 교'회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1명의 귀한 사역자를 통해 죽어가던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사역자로 잘 세워지도록 중보해 주세요.

산잔 국민고등학교 졸업생 6명. 살'렘신'학교 입학

지난 ㄱㄷ소식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장학금 매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대학교 장학금(4년) 후원자 7명,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살'렘신'학교 장학금(4년) 후원자 6명, 모두 13명의 후원자가 연결되었습니다. 살'렘신'학교 입학과 작년에 입학한 3명 신'학생을 만나기 위해 말랑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중보해 주세요.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폰티아낙 대학생 기숙사

8월 초, 2학기 마지막 기숙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사를 꿈꾸는 사범대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자 고향 집으로 돌아갔고 9월 초,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산잔마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남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진주회사 후원으로 새로 오픈했습니다. 올해는 산잔 졸업생 7명이 입학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대학생 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산잔마을 국민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창업지원

산잔마을 국민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창업 지원을 위해 떡볶이와 핫도그를 파는 포장마차 사업을 오픈하였습니다. 깔리만탄섬에는 아직도 한달 최저임금이 1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서문회사와 진주

회사에서 중고오토바이 1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자립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 모아 주세요.

산잔마을 기'독 학교, 100년 그림을 그려보다

100년 뒤에도 운영되는 기'독학교,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복'음'의 군사들을 세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100년 계획을 손 모으며 세우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탐방하며 100년 뒤에도 여전히 운영되는 학교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들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세상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학교를 꿈 꿉니다.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명문 기'독'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주세요.

한국 댄스 페스티벌 개최, 한국어 수업 시작

한국어 강의로 섬기는 대학교에서 한국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1,000명 정도 모였는데 마치 한국에라도 다녀온 것처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람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국 댄스를 준비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중간중간 한국 관련된 퀴즈를 내면 곧잘 정답을 말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함, 오직 복'음'만이 저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한국어 강의도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매일 손 모으며 준비합니다.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을 소개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나눠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소서.

인도네시아 권시민 M 기'도'제'목

1. 산잔 고등학교 졸업생 장학금 후원 매칭 된 13명의 학생들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도네시아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일꾼으로 잘 새워지도록
2. 새롭게 배치된 실습 전'도'사(살'렘'신'학교) 4명을 통해 정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 충성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3. 앤또마스 마을 교'회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도록
4. 기숙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해지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5. 한국어 수업을 통해 만난 대학생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해지도록.
6. 저희 가정이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모범 되는 삶 살아 가도록 손 모아 주세요.